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2022 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 개최

2022 년 9 월 28 일, 서울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2 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9 월 28 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ECCK 는 이날 3 년 만의 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 개혁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백서에는 총 18 개 산업 군 96 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식품, 주류, 에너지 환경 그리고 화학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규제 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 여년간 유럽과 한국간의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성장했다. 2021 년도에는 2010 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의 무역량이 610 억 유로에서 1 천 70 억 유로로 급성장했다.<sup>1</sup> 이처럼 향후 유럽과 한국의 보다 성숙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루카트 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유럽 기업에게 필요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EU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현재 지정학적인 격동기에 놓여 있으며, 이에 지금이야말로 유럽-한국의 관계와 같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강력한 가치를 바탕으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과 한국은 디지털과 그린경제라는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의 명백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2022 년도 ECCK 백서 내용에 관해 발표가 이어졌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백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안들로, 올해는 총 21 개 위원회 중 18 개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전하는 총 96 개의 제도 개선 건의안을 준비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백서에서 매년 주요 이슈로 언급이 되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국제 표준화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 표준화의 실행 및 준수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며, 이는 우리 모든 회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sup>1</sup>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22)

이어 각 산업별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ECCK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전기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무공해차 및 저공해차 보급 목표 고시가 최소한 2년 전에는 이루어져야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자동차 인증 절차 관련해, “현재의 자동차 인증 체계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를 엄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업계와 합리적인 전기차 인증 요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여 절차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용차 위원회 **박강석**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동차 너비 기준의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너비 기준은 유럽보다 작은 2.5m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 너비와 연관이 있는 차로 폭 기준에는 유연성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너비 기준에도 유럽 기준인 2.55m를 허용하기 위해 0.05m의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CCK 주류 위원회 **제임스 페이튼** 부위원장은 “전자상거래는 디지털로 연결된 한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금이 주류전자상거래 규제 환경을 현대화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주류소매 면허자들이 업계 규정과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변화를 반영한 규제 안에서 유연성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카스텐 쿼메**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모든 시장 참가자를 위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회원사들은 현재 ‘식품 수입 및 판매’ 라이선스에 따라 안전하고 양질의 식품을 수입하고, 또한 소매업체 및 자체 오프라인 매장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 수입업자가 소매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만약 식품수입판매허가를 정지시키는 문제나 행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당국은 별도의 구분 없이 식품 수입 및 도매업과 함께 소매업을 모두 정지시키고 있다. 이 업체들은 서로 법적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해당 조치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장 **문고영** RWE 대표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가장 유력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간주되는 해상풍력 분야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해상풍력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생태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다 신속한 계통연계, 일원화된 인허가과정 및 명확한 주민 동의 가이드라인, 장기적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역량 강화에 대한 건의를 백서에 담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한국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ECCK 화학 위원회 **황지섭** 바스프 팀장은 “화학물질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의 조화가 필요하며, 한 예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의 수집 제조에 많은 나라들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다양한 서류와 신청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기에 경쟁력 면에서 불이익하다” 고 밝혔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법 개정 및 짧은 의견 개진·유예 기간을 언급하며, “현재 의견수렴 기간이 보통 30 일 이내, 혹은 20 일이나 그 이하로, 이는 산업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고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기관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한 기간동안 수렴하고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정례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2021 년) ECCK 가 백서에 제시한 114 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총무부즈만 실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 30%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전했다.

ECCK 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여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022 년 백서 파일 다운로드 링크**

- 한국어: [https://ecck.or.kr/wp-content/uploads/2022/09/FINAL\\_ECCK-White-Paper-2022\\_KR.pdf](https://ecck.or.kr/wp-content/uploads/2022/09/FINAL_ECCK-White-Paper-2022_KR.pdf)
- 영어: [https://ecck.or.kr/wp-content/uploads/2022/09/FINAL\\_ECCK-White-Paper-2022\\_EN.pdf](https://ecck.or.kr/wp-content/uploads/2022/09/FINAL_ECCK-White-Paper-2022_EN.pdf)

(끝)

#### **ECCK 백서 2022 에 대하여**

올해 ECCK 백서는 총 18 개 산업별분야(자동차, 주류, 화학, 화장품, 패션 및 유통, 식품, 헬스케어, 보험,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물류 및 운송, 조선 및 해양, 항공 방위, 에너지 환경, ICT, 조세, 관광, 지속가능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총 96 여개의 이슈를 제시하였다.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들은 ECCK 소속 회원사의 200 여명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거하였고, ECCK 사무국과 협력하여 편집을 진행했다.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대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 년 설립된 협회이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 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 유럽기업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약 40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약 5 만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다.